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이 귀신사 비로자나 삼불좌상 점안법회서 대중에 법문을 하고 있다.

소조비로자나 삼불좌상 개금 점안

김제 귀신사,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초청해 법회

김제 귀신사(주지 무여)가 4월 8일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이건식 김제시장, 김종회 국회의원, 나병문 김제시의장, 김제 보리수합창단, 지역불자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보물 1516호 대적광전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 개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점안의식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월주 스님의 법어, 무여 스님 인사말, 감사패 수여 등 순으로 이어졌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귀신사는 신라시대는 화엄10찰에 해당될 정도로 거대한 사찰이었다"며 "쉼 없는 기도 정진으로 지역의 귀감이 되는 사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여 스님은 인사말서 "금산사 및 귀신사의 여러 스님들이 귀신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며 "보물 1516호인 귀신사 소조 비로자나 삼불좌상의 개금사업과 지난달 말 귀신사의 명부전 불상 및 영산전 불상이 모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 또한 귀신사의 제 위치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현재 귀신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등 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13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천년고찰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대부분의 전각과 문화재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국불교 선봉장, 큰 뜻 기리자"

해남 대흥사, 4월 7일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4월 7일 해남 대흥사서 거행된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법요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서산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호국명승장 서산대사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탄신 497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가 열렸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4월 7일 경내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 정관계인사, 불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지휘한 팔도선교도총섭 승군장 서산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제향행사를 열었다.

특히 서산대제는 예제관 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유교식 서산대사 국가제향과 법어, 헌다, 헌화 등 불교식 제향으로 진행하는 법요식이 함께 열리는 등 특색있는 의식으로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보살계 수계 금강대법회와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화폭과 원고지에 담아내는 제23회 나라사랑 글쓰기대회 및 사생대회가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법문을 대신해 호국애민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로 서산대사의 오도송과 열반송을 봉독하며 선조의 숭고한 가르침을 추모했다.

법문에 앞서 주지 월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를 하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이 나라가 잘 살고 국민들이 흥이 나도록 하는 것이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스님들께서 맨손으로 일어나서 이 국토를 지켜내셨다"며 "제행향사는 그 큰 뜻을 기리는 행사이기에 더욱 감사하다"고 의승군의 의미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법요식에 이어 서산대사를 모신 표충사를 참배했다.

한편 정조대왕 때부터 해남, 순천 등 전라도 5개 마을이 합동 주관해 매년 봄 · 가을 국가제향으로 봉행하던 서산대제는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됐다가 20여 년 전부터 불교식 제향을 실시해왔다. 이후 대흥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옛 문헌 '표충사 향례홀기'와 '진설도' 등의 기록을 근거로 2012년 유교식 국가제향을 복원해 매년 봄에 봉행하고 있다.

서산대제 국가제향 복원을 추진하는 조계종과 대흥사는 '호국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호국대전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산대사 황금십자가 복원사업, 다큐멘터리 제작 등 관련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동백시문학 템플스테이 개최

미당 서정주, 최영미, 김용택 시인 등 당대 내로라하는 시인들이 노래한 고창 선운사 동백숲에서 시인과 함께 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8일과 9일 '화암사 내사랑' 등 아름다운 사찰 풍경을 노래한 안도현 시인을 초청해 동백시문학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선운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 낭송, 동백숲 명상,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겨우내 무거웠던 몸과 마음을 깨우고 봄의 향연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을 제공했다.

근대 한국 시문학과 판소리 등 문화예술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서 깊은 선운사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서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동백숲 그늘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고, 안도현 시인과 평소 자신이 지은 시 또는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성호 템플스테이 팀장은 "도량을 수놓은 동백꽃을 비롯한 아름다운 봄꽃들과 안도현 시인의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쌍봉사, 찾아가는 마을 밥상 운영

매월 경로당 · 마을회관 방문해 행사 예정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음식 많이 있으니까 급하게 드시면 체합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쌍봉사는 지난달부터 매월 진안군 내 11개 읍면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고, 갖가지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

4월 8일에는 진안군 성수면에서 어르신 섬김잔치를 열었다. 성수면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이날 어르신 섬김잔치는 보경 스님과 쌍봉사 섬김봉사단, 진안군자원봉사센터등과 연계해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쌍봉사는 이날 어르신들에게 점심공양과 음료 등 다과를 베풀었으며 경기도 한사람나눔봉사단, 진안자원봉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공연과 의료봉사, 미용봉사 등의 나눔행사를 펼쳤다. 또 미니 연잎밥 체험, 미니 방향제 화분만들기 체험, 전래놀이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보경 스님은 "당초 어르신들을 쌍봉사로 초청하는 잔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먼 길을 오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해 찾아가는 잔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쌍봉사의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서 마을단위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는 작은 규모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법과 봉사를 병행하는 형태로 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서도 봉축분위기 '물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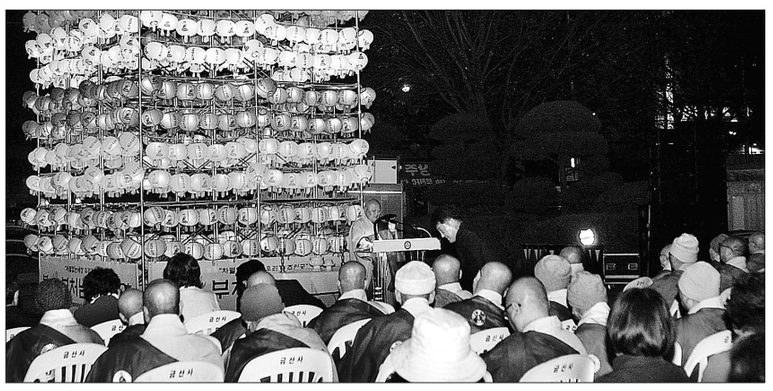
전주 · 정읍서 봉축기원등 불 밝혀 봉축행사 시동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기원등 점등식이 열렸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4월 8일 전주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봉축기원등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알리며 전북불교와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원등 점등법회에는 성우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조계종 17교구 본말사 스님,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직무대행, 정동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서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자비와 평화를 위해서다"며 "미움보다는 사랑,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 좌절보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히자"고 강조했다.


전북봉축위는 4월 8일 전주 종합운동장 주차장서 봉축기원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등 규모를 축소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전주시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전주는 이날 봉축기원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큰잔치, 행복바라미 축제, 불교합창제 등 크고 작은 봉축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 봉축위는 기원탑 규모를 축소하고 불꽃놀이를 생략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전주시의 청년신용회복 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읍사암연합회(회장 도완, 내장사 주지)는 4월 6일 정읍 중앙로터리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도완 스님을 비롯해 정토사주지 원공 스님, 운주암 성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생기 정읍시장, 내장사 서래합창단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점등식에서 정읍사암연합회는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곡성 태안사 효잔치 '공양미 300석' 주제

심청의 '효' 사랑을 주제로 잔치가 열렸다.

곡성 태안사(주지 각초)는 4월 8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2회 태안사공양미 300석 효 잔치'를 곡성군 11개 읍 · 면 65세 이상 노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효 문화를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문화를 펼칠 의미로 개최한 '공양미 300석 효 잔치'는 효심의 고장 곡성 심청의 효심과 공양미에 얽힌 사연이 주제다. 여기에 사찰에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의 효도미를 만들어 일일이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증정했다.

행사를 주관한 태안사 주지 각초 스님은 "공양미 300석 효 잔치를 통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 심청이의 효심이 어렵고 각박한 세상에 모든 사람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류종표 곡성군 노인회장의 축문을 시작으로, 배우 전원주 · 선우용녀 씨의 토크와 노래를 비롯해 각종 문화공연, 사진전시회, 장수사진 촬영, 의료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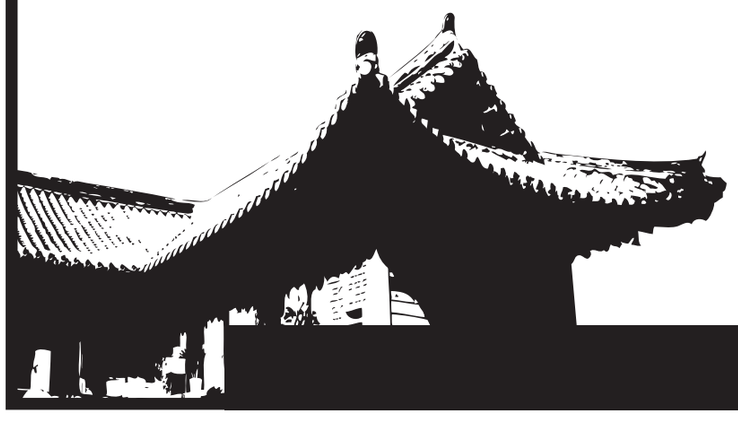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